

베트남에 설립예정인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복합단지

크리스탈 사(Crystal Corporation, 홍콩)와 퍼시픽 텍스타일 홀딩 사(Pacific Textitile Holding Limited., 홍콩)는 베트남에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원단 및 의류 제조 분야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두 회사는 원단과 의류 복합 단지 설립에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베트남에 설립 예정인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직물 및 의류 복합 단지>

복합 단지는 약 70ha 면적의 규모로 하이즈엉(Hai Duong) 북부의 구옌지얏(Nguyen Giap) 공단에 위치할 예정이고, 편성, 봉제 및 가공 공정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제조 시설로 설립될 것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수직 체계의 통합 제조 설비 구축 프로젝트로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총 1억 8천만 달러 중에서 섬유 소재 제조, 특히 원단 생산에 1억 2천만 달러를, 나머지 6천만 달러는 의류 생산에 투자될 것이다.

복합 단지는 2013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앞으로 10,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간 수익이 5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의 두 홍콩 기반의 회사들은 현재 베트남에서 각자의 생산 설비를 가동 중에 있다.